

◇무위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보물 제1312호).

무위사 아미타삼존불 등 불교문화재 8건 보물지정

문화재청은 최근 고려말 조선초기 불상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는 무위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등 8건의 불교화재를 보물로 지정했다.

고려후기 불상 조각양식을 계승하면서도 독자적 양식을 정립하던 조선초기의 과도기적 성격이 묻어난 전남 강진 무위사 목조아미타삼존불상은 1934년 전남 장흥 보림사 삼층석탑(국보 44호) 보수시 발견된 석탑지(石塔誌) 내용으로 볼 때 1478년 조성된 것이다.

이밖에 무위사의 △극락전 아미타후불벽화 △극락전 백의관음도 △극락전 내벽 사면벽화와 △산청 율곡사 괘불탱 △고성 운흥사 영산회괘불탱 및 궤 △금강역삼가해 △예념미타도량참법 등이다.



◇국내 주요 도난 문화재 5점이 화상수배된 인터폴 홈페이지 도난예술품 사이트.

도난 문화재 5점 인터폴에 화상 수배

국내 주요 도난 문화재 5점의 사진이 국제 경찰인 인터폴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 수배됐다.

인터폴은 최근 인터폴 홈페이지 도난예술품 사이트(www.interpol.int/public/workofart)에 한국 경찰청이 국제 화상 수배를 요청한 송광사 16조사 진영 등 주요 도난문화재 38점 가운데 선암사 석가모니 후불탱화, 불갑사 나한상, 정혜사 관세음보살좌상 등 5점을 사진과 함께 국제 수배했다. 나머지 33점은 인터폴에서 제작한 도난예술품 CD-ROM에 관련 내용이 수록됐다.

경찰청 우리문화재 지킴이 전담수사관인 김태균 경위는 "이 같은 인터폴과의 공조체계를 통해 문화재 국제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문화재청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주요 도난문화재의 국제 수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다름' 넘어 '가치있는 교육' 승화"

인드라망 화엄광장 '대안교육 성찰과 과제'

"교육과정-교재개발 급선무"
"'소수의 틀' 벗고 대중화 필요"



◇'깨달음은 나무처럼 자라난다'는 모토로 올 3월 문을 연 불교계 중등과정 대안학교 '실상사 작은학교' 입학식 모습.

제도교육과 다르면 무조건 대안교육이고, 무엇을 대신한다는 의미에서 '대안'이면 무조건 대안교육인가? 입시교육으로 지쳐가는 학생들에게 대안교육이란 이름으로 무엇을 가르쳐야 하며, 과연 제대로 가르치고 있나를 점검해 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11일 충남 홍성 풀무원 농업고등기술학교에서 '대안교육에 대한 성찰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제4차 화엄광장이다.

고병헌 교수(성공회대)는 '대안교육과 평화교육의 만남을 위하여' 주제의 기조발제에서 "대안교육은 기존의 것과 '다름' 혹은 '새로움'이 아니라 '경쟁력'이나 '속도'와 같은, 현대 문명의 주류적 가치에 밀리지 않는, '지속할만한 가치가 있는' 대안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지속할만한 가치'에 근거한 대안적 가치란 곧 생명을 중시하고 공동체를 중시하는 생태적 교육이념이라고 밝혔다. 고 교수는 "교육에서의 변혁은 법과 제도를 고치는 방식이 아니다"며 "교육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방향을 정할 때 비로소 교육에서의 질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고 교수는 대안교육에서 이러한 교육이념과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 못지않게 바로 그러한 교육이념과 철학을 반영한 교육과정과 교재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대안교육은 결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세계적인 대안교육 실천운동들이 저마다의 교육과정과 교재, 교육방법, 그리고 특히 교사양성과 학부모 교육과정을 무엇보다도 먼저 확실하게 구축하려고 했던 이유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대안교육이 단지 교육방법론 차원에 머물러 정부 주도의 7차 교육과정에서 시범학교 역할을 하는 데 그칠 수도 있다고 고 교수는 경고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상덕 서울 면목초등학교 교사는 "현재로서는 실험적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로 벽지에서 소규모 사립학교로 출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일반 학교에 '확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증하는 노력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백제 木簡 23점 발굴

부여 능산리 절터 '보희사'일 가능성

금동대향로(국보 287호)와 '창왕'명 석조사리감(국보 288호) 등이 잇따라 출토됐던 충남 부여 능산리 백제시대 절터에서 당시 절 이름 등을 적은 목간 23점이 무더기로 발굴됐다. 국립부여박물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부여 능산리 절터에 대한 7차 발굴조사 결과 백제 목간 23점을 비롯, 나무 그릇, 나무 빗, 나무 젓가락 등을 발굴했다고 7일 밝혔다.

목간이란 묵글씨나 칼로 글자를 새겨 넣은 나무막대나 나무판자를 말하는데, 이번에 출토된 목간 중 '보희사(寶憙寺)'란 절 이름을 적은 것이 특히 관심을 끈다. 박물관 측은 마지막 서울이었던 사비시대 능산리에 있던 왕실 사찰의 이름이 '보희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불교의 연기론적 존재방식을 표현한 '숙세결업동생일처(宿世結業同生一處)' 글귀가 새겨진 목간도 함께 발견됐다.

박물관 박중환 학예연구사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에도 백제관련 기록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당시의 불교사상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이다"고 설명했다.권형진 기자



◇절 이름이 쓰여진 목간.

"공약삼장 집필자는 최남선 아닌 한용운"

박노자 교수, 만해축전 심포지엄서 주장



기미독립선언서 공약삼장의 집필자가 만해 한용운이 아니라 독립선언서를 지은 육당 최남선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논문이 발표됐다.

제3회 만해축전의 일환으로 설악산 백담사에서 5일 열린 '만해의 독립사상과 불교의 독립운동' 학술 심포지엄에서 박노자 교수(오슬로 국립대 한국학 · 사진)는 "공약삼장에 나타난 자유사상이 최남선이 주장했던 국가 민족중심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공약삼장 집필자는 "최남선이 아니라 만해 한용운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공약삼장의 자유 · 비폭력 · 국제주의 사상이 만해의 평생의 신념과 어느 정도 가까운 관계에 있었는가라는 측면에서 만해 사상의 원류를 추적해 들어간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박 교수는 만해와 육당이 모두 허버트 스펜서가 사회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집단주의적 자유론에 영향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만해는 육당과 달리 불교적 정신을 통해 개인주의적 자유개념으로 사상을 발전시켜 나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차이는 1918년 불교잡지 〈유심〉 3호에 나란히 실린 만해와 육당의 글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고 박 교수는 말했다. 만해가 현대적 자유의 개념을 불교사상의 '해탈'을 통해 수양적 · 정신 발전적 · 비폭력적 방향으로 재해석한 반면, 육당은 물질적인 '강함'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불교의 해탈과 불살생 · 박애 · 보편 도덕주의 정신을 끝까지 지켜온 만해가 자유 · 비폭력 · 세계주의를 골자로 하는 공약삼장의 필자"라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高僧 다시보기

진표 스님과 목륜(木輪)

진표 스님은 신라 사회 전체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던 때인 경덕왕과 혜공왕 대에 활동하였으며, 유가종의 종조로 숭앙받고 있는 고승이다. 당시 화엄종과 더불어 대표적인 교종이었던 유가종이 교학적 · 관념적으로 치달을 때 스님은 독특한 수행과 교화로 실천적 종교운동을 폈다.

스님은 중국에 들어간 적이 없는데도 중국의 〈송고승전〉에 입전되었을 만큼 덕이 높았으며 〈삼국유사〉에 스님에 관한 글이 두 편 실려 있어 대강의 행적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스님은 718년 무렵 완주 만경현에서 지방 유력자의 아들로 태어나 12세에 금산사의 순제(또는 숭제)스님 밑으로 출가해 참회계법을 배웠다. 스승을 떠난 후 10여 년 간 역사상 그 유래없는, 목숨을 건 참회 수행으로 마침내 득도하게 된다.

스님은 23세인 740년(효성왕 4) 전북 변산의 불사의암에서 7일 간격으로 온 몸을 바위에 부딪치거나 몸을 바위 아래로 던지는 망신참회행(亡身懺悔行)을 하였다. 이에 지장보살이 나타나서 계를 주었다고 한다. 스님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욱 용맹정진하였는데 미륵보살이 나타나 〈점찰경〉 2권과 증과(證果)의 간자를 주면서 독려하였다고 한다.

스님이 받은 간자(簡子)는 첨자(籤子) 혹은 점대라고 한다. 작은 손가락 크기의 나무를 다듬어서 마치 구슬처럼 만든 것이다. 중생의 삿된 견해와 의심

미륵보살로부터 189간자 받아 참회 점찰계법으로 민중 교화

덩어리를 깨뜨려서 바른 길로 나아가 안심처에 이르도록 하므로 나무바퀴(木輪)라 한다. 〈점찰경〉은 많은 장애와 곤란으로 부처님의 정법을 믿고 닦을 수 없는 중생들을 위하여 지장보살이 석가모니를 대신하여 설한 내용이며 3개, 10개, 6개의 목륜으로 숙세와 삼세의 업보를 점치고 살펴서 중생의 어리석은 마음과 무명의 장애를 청정하게 하는 것이다. 점을 쳐 살필 때에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여야 하며 결코 세간에서의 길흉 등의 일을 점치는 점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스님은 미륵보살로부터 무려 189 간자를 받았다고 전해지는데, 그 가운데 제8, 9간자는 미륵보살이 자신의 손가락 뼈로 만든 것이라 한다. 제8간자는 인간의 노력과 타인의 교화를 통하여 얻어지는 후천적인 종자이며 제9간자는 인간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 종자이다. 현재의 모든 행위와 의식이 이를 바탕으로 일어나며 사라진다는 아뢰야식연기와 통한다. 이러한 가르침을 체계화한 것이 〈대승기신론〉이라면, 그 신앙을 기록한 것이 바로 〈점찰경〉이다. 원광 스님이나 자장 스님이 점찰법회를 베풀고 원효 스님이 〈대승기신론〉을 풀이하여 저술한 뜻을 스님이 계승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스님은 실제 그의 고향을 이룻한 서해안 일대로부터 금산사, 속리산, 강릉, 금강산 발연사를 중심으로 참회점찰계법으로 지방의 민중들에게 실천적인 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폈다.

황인규/동국대 강사

귀신침범 · 산소침해(탈) · 빌미 · 부정병 · 응기 판단 · 비방법

육임비요형이상법 안내(六壬秘要形而上法 案內)

찾아오거나
전화해 오거나
가서 만난 사람이 지금.

一. 어떤 귀신, 누구 산소, 무슨 빌미, 부정병의 침범을 받고 있는지
一. 그 귀신, 산소탈, 빌미, 부정병을 어떤 방법으로 제거 할 수 있는지.
一. 천도, 시식, 부적 등의 수법을 행했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없을 것인지, 효과가 나타난다면 어떤 방법을 써야할지.
一. 수법을 행했을 때, 언제 어느 날 부터 효과가 나타나서 언제 완전해 질 것인지.
一. 모망, 승진, 구재, 구직, 시험, 결혼, 임신, 가정, 이사, 소송, 질병, 매매, 여행, 도난, 실종, 가출, 면접, 채용, 투자, 승부, 가격, 경락, 묘지, 기후사 등의 중요사가.
언제(어느 월, 어느 일) 이루어 질것인지.

이상의 형이상사(形而上事)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못한 아쉬움과 이에 대한 학술이 갈망되어 왔으나 육임에서는 이에 관련된 사항이 비요(秘要)로 전해져 오고 있는바, 이를 이번에 정확히 밝히게 되므로서 우리 활인 천역자들의 경지가 한차원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보셔서 활인 천역의 당오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고복자 철학박사 효 사 배상
도서출판 복 문
전화 :(02)993-8680

육임(래정비법)설명회 안내

「육임래정비법」 (온 사람의 사정을 미리 아는 법) 값 삼십오만원
「육임세밀정단법」 (묻는 내용을 소상히 판단하는 법) 값 일십만원
「육임대요형이상법」 (귀신 · 산소탈 · 빌미 · 부정병 · 일의 되는 날자 판단 법) 값 일십오만원
「육임운명판단법」 (사주를 몰라도 운명감정을 정확히 할수 있는 법) 값 일십만원

위 내용의 설명을 다음 각 장소 · 시간에 실시하고 있사오니 위 책을 구입하신 활인 · 천역자 제위께서는 이 중 마땅한 장소를 골라 참석하여 더욱 밝은 활인 · 천역의 당오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고복자 철학박사 효 사 배상

장소 및 시간 (수강료는 없습니다.)

◦서 울 관토원(매주 토요일 오전11시~오후4시까지) 서울 강북구 수유3동 190-49 일심빌딩 401호(지하철 4호선 수유역 8번 출구, 강북구청 좌측 옆건물) TEL : 02-993-8680
◦부 산 해정식당(매주 일요일 오전10시~오후3시까지)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1동 1129-2(부산 지방법원 동부지원 건너편) TEL : 051-781-2669
◦대 구 보리암 선원(매주 월요일 오후2시~5시까지) 대구시 남구 대명5동 149-1(영대병원 지하철 암산출구 새한약국 뒷편 2층) TEL : 053-653-0287
◦광 주 광주시 동구 학1동 동사무소 2층 희의실(매주 화요일 오후2시~5시까지)
◦전 주 원각정사 (매주 수요일 오후2시~5시까지) 전주시 경원동 2가 43-3(구 경기전 뒤 제세한의원 2층) TEL : 063-284-7714
◦수 원 수원시 팔달구 지동 319-4(매주 목요일 오후5시~8시까지) 반야원 철학원 (기동제일교회 맞은편)
◦청 주 동인당 한약방(매주 목요일 오후5시~8시까지) 청주시 상당구 오암동 378-4(동부경찰서-MBC 사이) TEL : 043-221-2557
◦원 주 노경철학원(매주 금요일 오후5시~8시까지) 원주시 봉산동 쌍다리(경찰서 앞)전 한약방 2층 TEL : 017-377-7005
◦인 천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92-4 종호철학 컨설팅(인천시 지하철 1호선 박촌역하차 2번출구에서 전화요망) TEL : 032-554-3789
◦충 주 충주시 가금면 창동리 금강사(매주 금요일 오후2시~5시까지) (판금대 큰 다리에서 150미터 지나서 금강사 이정표가 있음) TEL : 043-842-3352
◦대 전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40-8 대영회관 3층 양부건설사무실 (매주 화요일 오후6시~9시까지) (갑천 태평교 동명주요소 옆) TEL : 042-584-1709

위 책 구입 및 설명회 문의전화 : 02-993-8680

입 금 구 좌 : 한 빛 은 행 066-475024-02-001 김 나 여